

서로 신뢰하고 스스로 신명나게 일하는 안전 청색현장

-현대산업개발 인천송현지구 도시계획도로(터널)현장-

새 생명이 태어나듯 토목현장으로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현장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사 자체의 토목현장으로는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 청색현장으로 지정 받은 현대산업개발 인천송현지구 도시계획도로(터널)현장(유수봉 소장)이 바로 그곳이다.



▲ 유수봉 소장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상·하행선 500m와 폭 50m의 터널공사로 NAM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정을 72%로 12월 27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원청이나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안전보다는 실제 작업에 임하는 작업반장과 일용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현장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유수봉 소장은 공정이나 원가를 핑계로 일 진척에 집착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오히려 공기 지연이나 원가가 더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유수봉 소장의 마인드가 현대산업개발 전 토목현장 중 최초로 청색현장으로 지정받는 실적을 거두게 된 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

198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현장근무만을 해온 유수봉

소장은 터널현장은 처음으로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

최대한의 안전을 고려한 발파작업

송현터널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종으로는 터널 주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에 불가

피한 발파작업이라 할 수 있다. 송현터널은 도심지 터널공사로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민원까지 고려한 발파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무진동 발파공법 등 선진 공법으로 안전성에 각별한 배려를 했으며, 특별히 공발 현상 방지에 신경을 썼다. 이 밖에 천공, 장약, 발파, 화약류의 운반 및 처리 그리고 버력처리와 부석처리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계도, 근로자 각자가 안전활동 시행 등의 안전 확보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

발파작업 전에는 화약제조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작업에 임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 진행도 일괄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마케팅을 이용한 추락 실험, 금부어를 이용한 자동전격방지 실험, 119 구급대 응급처치 교육 등 감각과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해·위험요소 발굴 생활화

매일아침 6시 모든 근로자들은 팀단위별로 모여 체조,작업전 점검,TBM에 참여한다.

이는 위험요소를 찾기 위한 활동이며,작업시작전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매일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현장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1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안전의식이 그만큼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2군,3군 현장에서 일을 하면 다시 안전수준이 내려가 있음이 종종 확인되는 일입니다.따라서 저희 현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처음부터 안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라는 유수봉 소장의 말에서 유해·위험 요소발굴 생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전직원에게 안전관리 책임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감독과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추락,낙하로 인한 위험작업,고소작업,유해·

위험 기계작업,전기작업,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협력업체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제도로 해당작업의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전담 수행한다.또한,정기적인 노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소장,각 공구장,안전관리자,협력업체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불안정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송현터널 현장에서는 현장 입구에 수평대를 설치하여 매일 아침 작업 투입전에 수평대를 건너게 한다.이 때 음주 의심자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여 작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모든 보완



초일류 현장 탐방

사항을 안전신문고에 넣으므로써 근로자의 의견이 제출되는 제안제도로 모든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 등 제도를 간편하게 하였다.

타 현장에서의 제안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 등 서류에 의해 제출되며, 현장 일용 근로자들이 참여하기 전에 먼저 부담을 갖게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제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월말에 집계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안전활동은 강정우 안전관리자가 추진하고 유수봉 소장이 지원함으로써 청석현장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해 왔고,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업무를 연구 개발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것이 무재해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무재해는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유수봉 소장과, 『경제는 MF이전으로



되살아나고 있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위상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조치 등으로 매우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안전인은 준공 그 날까지 한 사람의 근로자도 다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다른 현장으로 갈 때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강정우 안전관리자는 작은 소망에도 기뻐하는 소박함을 가지고 있다.

자율적인 안전추구와 소박한 마음에서 펼쳐지는 송현터널의 안전활동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태극전사들이 영웅인 것과 같이 작은 토목현장에서 또 다른 신화가 창조되길 기원한다.



〈취재 : 최종덕 기자〉